

교회 목표

신약한 에베
친구일론 창성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아름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로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경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스데반의 기도

천지의 주재(主宰),
Abraham과 Isaac과 Jacob의 하나님!
이 땅의 사나움은
인내 가르치시는 연단의 불꽃,
영혼같이 파고드는 고통은
당신께로의 귀향!

때때로
모진 비난과 위협의 칼날
물릴 듯 물려줄 때
그리스도여,
당신의 순결한 기억하게 하소서!
다툼의 자리 외면하시던
하나님의 거절(拒絕) 알게 하소서!

날아드는 돌덩어리
온몸을 두드리면,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상과 싸우셨던
연약한 당신
떠오르게 하여 주소서!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낸 기쁨으로
미움 몰아내고,
지난 날
십자가 위에서
나즈막히 하시던 기도
내 곁전에 생생히 들려지게 하여 주소서!

그대의 향기(香氣),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가 둘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
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
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
로되 주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
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9, 60)



신앙 칼럼

예수님은 나를 알고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神**이라고 한다. 그는 하
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는 다 고쳐주었다고 말한다. 장티푸
스, 중풍, 나병, 심지어는 시각장애자의 눈도 뜨
게 하였다. 그는 폭풍속의 바다를 걸어서 오기도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였다. 죽은지 나흘이
나 되어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자의 무덤에 찾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였다. 그는 성경
에 나오는 그의 신적인 능력을 변론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믿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예수에게 나의 소원을 말하며 자
라왔고 간절히 기도하므로 늘 나의 소원하는 것
들이 이루어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히2:18)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만은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나를 안다는 것이다. 그의 도와줄은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며, 그래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
다는 말이다. 그는 나의 피곤함을 이해한다. 그는
나의 두려움도 알고 있다. 그는 나의 고통의 눈물
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지전능한 신으로
서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지전능한 신으
로써 나를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나에게겐 말
할 수 없는 큰 힘이고, 기쁨이다. 그렇지만 그가
나를 아는 것은 그가 눈물의 사람이었고, 피곤한
중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두려움 속에
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전능자 예수를 찾아 의지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알고있는 이 예수와 함께 생
각하고, 함께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래서 나는 예수가 참 좋다. **神**이 인간이 되어 나
의 삶에 들어온 것은 **예수**. 그는 나를 알고 있
다. 그리고 나도 정말 진심으로 그를 더 알고 싶
어진다.

(이홍성 목사 - 교구지도)

거룩에 대한 소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고전1:2). 바울의 인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거
룩한 자들', 즉 성도라는 인사말이 그렇다. 오늘날 성
자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메달들, 그리고 자동차의
계기판에 많이 나타난다. 어떤 정치가는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주 확인 있게 말한다. 그가 이렇게 겸
손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그의 과거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며 그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입시키
기 위함이다.

성자됨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조소의 이면에는 인간
됨의 의미를 외면하려 하는 죄책감이 숨어 있다. 반역
자인 우리는 성자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
다. 곧 성자(성도, 영어로 모두 saint)란 테사사 수너저
런 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인간 존재는 아니
라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해진다 것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거룩성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godliness), 하나님에 없는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
다. 사도 바울로는 이방인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쓴
다. "나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육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

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
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겠
느니라" (벧전1:14-16).

하지만 이사야는 스랍들처럼 '거룩하다' 고 외칠 수
없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
쳐야 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왕이신
그분을 눈으로 본 것이다(사6:5). 죄 있는 인간에게 하
나님의 거룩성은 타오르는 의의 불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하여 "네
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분의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일
으킬 뿐이다. 그러나 단에서 취한 숯불이 우리의 부정
한 입술에 닿기 전에는 이사야처럼 절망을 맛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구속된 백성은 죄 씻음을 받았으며,
외로운 성부의 사랑에 천사보다도 가까이 이끌린 백성
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의롭다 칭
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이
는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된 것과 같이 그리스
도의 완전한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빌
3:9, 벧전2:24). (Edmund P. Clowney의 '교회'에서)

제명, 출교란 무엇인가

교회 회원 및 직분의 박탈, 성도간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

교회는 지난 11월 8일의 정기당회에서 그동안 수한
정적, 정직의 징계를 받은 윤명식, 김자경, 우기전, 손
동운, 박승준, 강은원, 손경수, 이인상 이상 8인에 대
하여 제명, 출교키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7일 당
회장 테리 사건과 연루하여 근신, 수한정적, 정직의 징
계를 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업을
을 변명하기 위해 소위 행방을 작성하여 제명들에
게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
하고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IV 정칙 제8장 제4
조, VI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 VII 예배제도 장 제16장 시
범에 의하면 제명이란 교회의 회원됨과 장로의 직분
을 박탈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교회 회원이 아니며 어디

가서든지 장로로 불리우받지 못하는 것이다. 출교는
근신과 수한정적 등의 권징을 받고 끝까지 회개치 아
니하는 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성전에 참여하지 못할
은 물론이고 성도 중의 교제가 단절됨을 뜻한다. (마
18:15-17, 고전 5:1-5)

이제 이들을 충현교회 회원으로 인정치 않음으로
교회가 이들의 교회의 출석을 기결하는 것이다. 따라
서 은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그들과의 공
적인 면에서나 개인적인 면에서의 교제를 금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 제명, 출교된 자들이 그
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
닫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
으로 그 교제 안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회개의
심정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정한 법인 것이다.

Need of the Lamb

(Exodus 12:3, 4)

"Now if the household is too small for a lamb, then he and his neighbor nearest to his house are to take one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rsons in them; according to what each man should eat, you are to divide the lamb"

God told Moses and Aaron, while they were still in the land of Egypt, to speak to the entire congregation of Israel about a new ceremony. This ceremony, known as Passover, was the beginning of the Israelites. Its significance was so important that God marked it as the beginning of their new year. Its purpose was so important that God gave detailed directions concerning the formalities required to carry it out, such as, each household was to take a lamb, and if a household was too small to eat the whole lamb, then they were to share it with their neighbors. The emphasis was that the lamb needed to be eaten, all eaten, eaten by all, and at once. In like manner, the Lord Jesus is received into the soul as its food, and this is to be done with the whole of Christ by each one of His people, and done now. Indeed, the whole subject of Passover is rich in instruction. Let's confine ourselves to the particulars within today's Bible verses.

First, the Passover Lamb calls us to remember a primary privilege. Each man of Israel ate the Passover for himself, "according to what each man should eat." So do we feed upon Jesus, each one as his appetite, capacity, and strength enable him to do. But we must also remember that this same delicious food should be enjoyed by all the family, "a lamb for each household." What a blessing for all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servants to be partakers of Christ. By teaching, training, prayer, and holy example, this favor may be secured, for the Holy Spirit will add His blessing. Let's not despise our privilege! No person should be content without personal salvation, nor without the salvation of his whole house. The disciples remind us,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Acts 16:31).

The Passover Lamb is silent as to certain contingencies. The lamb was never too little for the family; and

assuredly the Lord Jesus is never too little even for the largest families, nor for the most sinful persons. Amen! There's no reason to limit our prayers for fear we ask too much. There's no reason to slow down our labors because the Lord Jesus cannot give us

them to feed upon. The last thing was supplied to the great marriage feast was guests. The oxen and the fatlings were killed, and all things were ready, long before the wedding was furnished with guests. As such, one family is certainly too small a reward for Jesus.

*The Passover Lamb symbolizes
the sharing of God's blessing. There may be want of
persons to feed upon the Lamb,
but there is no lack of food
for them to feed upon. The last thing was supplied to
the great marriage feast was guests.
The oxen and the fatlings were killed, and all things
were ready, long before the wedding
was furnished with guests.
As such, one family is certainly too small
a reward for Jesus.*

strength enough, or grace enough. There's no reason to restrain our hopes of salvation for the whole family because of some supposed narrowness in the purpose, providence, or willingness of the Lord to bless. Every man according to his eating may feast upon Christ. Every believing sinner may take Christ to himself, and there is no fear that one will be refused. "For it was the Father's good pleasure for all the fullness to dwell in Him" (Col. 1:19). In other words, there's no problem too big or too small for Jesus. Every sinner who receives Jesus Christ, receives a dwelling place in heaven (see Jn. 14:2&3). Amen!

The Passover Lamb symbolizes the sharing of God's blessing. There may be want of persons to feed upon the Lamb, but there is no lack of food for

One family is too little to give Him all the praise, worship, service, and love which He deserves. One family is too little to do all the work of proclaiming the Lamb of God, maintaining the truth, visiting the church, and winning the world. Therefore, let us call in our next door neighbors. They have first claim upon us. They are the most easy to reach, and by each calling his neighbor all will be reached! Our neighbors are the most likely people to be influenced by us.

At any rate, there is the rule, and we are to obey it, "and that repentance for forgiveness of sins w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Lk. 24:47&48). When we read about Andrew, Jesus' disciple, we find that,

"He found first his own brother Simon and said to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Jn. 1:41). Isn't that truly sharing the need of the lamb? If your neighbor does not come when invited, you are not responsible; but if he perishes because you didn't invite him, his blood is upon you. "When I say to the wicked, 'O wicked man, you shall surely die,' and you do not speak to warn the wicked from his way, that wicked man shall die in his iniquity, but his blood I will require from your hand" (Ezek. 33:8).

Finally, the Passover gives us thought about neighborly fellowship in the Gospel. Individuals and families need to grow out of selfishness, and to seek the good of wider circles. It is a blessing when the center of our society is the Lamb. Amen! Innumerable blessings already flow to us from the friendships which have come from our union in Jesus. Church fellowship has been fruitful in this direction. Our care for one another in Christ helps to realize the unity of the one body, even as the common eating of the Passover proclaimed and assisted the solidarity of the people of Israel as one nation. This spiritual union is a high privilege because it's God's grace. The Gospel itself is God's grace. Thoroughly carried out, heaven will be foreshadowed upon earth, for there love to Jesus and love to one another is found in every heart.

Let's be personal in our love. Let's be generous in our Gospel, and never neglect our families, our friends, or the neighborhood in which we live. Let's be the light of Jesus, the light of the world, the salt of the world because God's love came upon us. As believers, we are His children. We have a fundamental principle in our hearts—Jesus Christ! Let's shine! We need the Lamb of God, Jesus Christ. Let's be fruitful, especially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when everyone wants to bless others with material presents. Let's bless our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by sharing with them the need of the Lamb. He is the only way, truth, and life! Amen! 



김성록 목사

어린양

(출 12:3, 4)

“그 어린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나님의 제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월절로 알고 있는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날의 시작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또한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예식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지시하셨습니다. 집안의 가족대로 어린양을 취하되, 만일 식구들이 적어서 어린양을 모두 먹지 못하고 남길 것 같으면 그들의 이웃을 포함시켜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의식은 어린양을 모두 먹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며, 그리고 죽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 오셨으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행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우리 자신들도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놀라운 특권

우선, 유월절 어린양은 우리를 취수 선적인 특권을 가진 지체로 부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유월절 어린양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홍미와 영광, 그리고 그가 발휘할 수 있는 가능한 힘에 의거하여 예수를 섬기는 만큼, 예수께 공급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가족의 모든 식구에게 주어지는 ‘어린양’은 좋은 음식이 되어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종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훈과 훈련, 기도와 기쁨의 모범에 의해 이러한 호의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이며, 성령께서는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을 명시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개인적인 구원이나,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 없음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참된 만족

유월절 어린양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양은 가족들을 위해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가장 큰 대가들을 위해서도 결코 모자람이 없으며,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넉넉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구하는 것을 적정한 나머지,

유월절 어린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나눔을 상징합니다. 어린양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양은 그들을 위한 음식으로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커다란 혼인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손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힘과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의 수고를 점차 내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섭리, 그리고 의지가 멀어졌다든 어떤 추측 때문에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야 할 소망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를 취할 것이며, 거기에는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골 1:19).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크지거나, 만족하지 못할 만큼 작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죄인은 하늘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요 14:2, 3). 아멘!

초청해야 할 아들

유월절 어린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나눔을 상징합니다. 어린양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양은 그들을 위한 음식으로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커다란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손님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정만이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 가정이 주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모든 찬양과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입니다. 그러나 만일 초청하지 않아서 그가 심판 받게 된다면, 그의 피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렘 35:8).

참된 연합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복음 안에서의 다정다감한 교제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들과 가정들은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생각해야 하며, 폭넓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심이 어린양이 될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의 연합된 화목으로부터 축광할 수 없는 축복이 이미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제는 이러한 직접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지게 될 때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이렇게 유월절 공동체식은 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민족이라는 일치감을 선언하고 확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특권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수행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모두의 마음에 발진되어지는 천국이 세상에 드려오는 전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웃에게 비추어야 할 빛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십시오. 복음에 대해 관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임함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의 빛을 비추십시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필요함을 모두가 물질적인 선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크리스마스 절기에 특별히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린양의 필요를 전함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작습니다. 한 가정만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을 전파하며, 진리를 고수하고, 교회를 돌아보며,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서는 일은 우리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초청하는 일을 통해서 모두에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이웃은 우리들에게 가장 영향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전할 의무

하버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름으로 제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중언이라”(눅 24:47, 48). 우리는 예수의 제자, 안드레에 대해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요 1:41). 이것이 진정으로 어린양의 식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웃 집의 누군가를 초청하였을 때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

역라마단 기도운동(무슬림의 복음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2000. 11. 27~12. 26)

지난 주에는 역(逆)라마단 기도운동(무슬림의 복음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라마단은 무엇이고 역라마단이란 무엇이며 이 라마단 관련있는 종교인 이슬람은 어떤 종교일까?

이슬람과 무슬림

'이슬람'이란 말은 알라께의 복종을 의미하며 무슬림은 이슬람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슬람의 계시가 마호메트에게 주어졌고 그는 무슬림들에게 위대한 예언자로 숭배된다. '마호메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칭호이다. 오늘날 이슬람은 기독교에 이어 두번째로 큰 종교이다. 하지만, 단일종교로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11억 이상의 무슬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5~6억은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매일 37,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최근 통계로는 무슬림 100~150만 명에 한명의 기독교 사역자(선교사)가 있다고 한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알라는 유일하고 전능하며 모

든 무슬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신이다.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 구원 얻기를 소망하는 무슬림들에게는 실행해야 할 중요한 다섯가지 의무가 있다. 첫째, '나는 알라 이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또 나는 마호메트가 알라의 사자임을 증명합니다'라는 증언(샤하다) 또는 고백이고 둘째, 하루 다섯 번의 예배(살라트)이며 셋째,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며 비이슬람 국가에 대한 선교가반이 되는 의무금(자카트)이며 넷째, 라마단 기간 동안의 금식(사움)이고 다섯째, 인생에 한 번은 대제(大祭)에 참석하는 순례(하주)이다. 여기서 네번째 라마단 절기인 매년 이슬람력으로 아홉째에 해당하는 달로서 전세계 11억의 이슬람교도들이 지키는 종교의식을 뜻한다. 이때 성년인 무슬림은 주간(晝間)에는 식, 흡연, 향료, 성교를 금하고 과격한 말을 삼가며 가능한 [코란]을 독송하고, 어두워진 야간에는 음식을 먹는다. 그렇지만 이 의무를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의 보장은 없다. 이슬람의 구원은 자신이 행한 의로움에 기초한다. 무슬림은 심판날에 그들이 믿는 알라(또는 천사)가 각 사람의 행위를 저울로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무게가 나가기를 바라지만 알라의 심판조차도 알라의 공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단지 그의 뜻에 달려 있다.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사람의 행위를 적어 놓은 책을 알라가 심판날에 펼쳐 보고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여 그의 우편과 좌편으로 사람을 갈라놓을 것이라고 한다. 천국으로 가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슬람의 성전(Holy War)에서 순교하는 것뿐이다. 이 이슬람의 코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종종 언급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랄도 신성모 범하지 않는다. 또한 예수님을 12만 4천명 중의 한 선지자로 여길 뿐이다.

라마단

라마단(또는 라마잔)이라고 불리우는 이슬람력으로 9번째달에 해당하는 달에 무슬림들은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한 달간 금식과 기도를 하며 육망을 억누르고 영적인 경진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 초생달이 뜰 때를 기준으로 다음 번 초생달이 뜨면 끝나게 된다. 그리고 그 달은 매년 10일씩 빨라진다. 병자와 여행자, 임신부, 어린이를 제외한 전 무슬림들은 이 기간에 즉, 새벽 5시에서 해질녘까지 음식과 음료를 전혀 먹지 않으며 하루에 3번 또는 5번 서곡(종축마다 틀림)을 향하여 기도하고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한다. 이들은 라마단을 통해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무슬림 형제에게 돈독해진다고 믿고 있으며 금식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행동이라고 믿고 있다.

역(逆)라마단 운동

'역 라마단 운동' 혹은 '무슬림의 복음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이슬람의 라마단 절기와 같은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역(逆)으로 기도해서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운동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기도에 동참케 하므로 이슬람권에 복음의 돌파구를 열고, 더 많은 사역자들을 헌신케 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성령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무슬림권에서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전세계의 교회가 준비되기를 소망한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서 발췌



교도소에서 온 편지

권사님께

사람은 '사랑해야 할 때를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지 그리고는 '사랑했어야 할 때'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침이 있는 뒤에야 사랑의 그 크기를 알 수가 있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당장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이 다가왔을 때 그때서야 과거를 되새기보면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권사님 만길 오시느라 피곤하셨을텐데 서울로 잘 올라가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인 자들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들을 했듯이 나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재주의 누님이 다니는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성도들의 성령이 깊고 목사의 성품이 자극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권사님 더 건장하시게 담장 밖에서도 제모습을 오래도록 볼 수 있을 좋겠어요. 다음달도 권사님을 뵙기를 약속하고대하여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복 청송 교도소에서 ○○○

전도 지성경 ②

2. 복음의 정의와 전도의 필연성

● 복음의 정의

복음은 헬라어로 '유망케리온'이라는 단어로,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가세(gospel)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래 gospel은 영어로 색슨어 god-spell(God-story;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요, 성경 번역가인 틸데일(Tyndale)은 '복음이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노래하게 하며, 춤추고, 기쁨으로 인하여 뛰게 하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말로 복음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죄와 가운데 광항하여 사람의 길로 달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와 전도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며(마 4:20),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의뢰야 할 전도의 핵심내용이기도 합니다.

● 복음전도의 필연성

1.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요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 주님이 이 땅에서 전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

1. 전도에 대한 오해

2. 복음의 정의와 전도의 필연성
3. 전도의 내용
4. 결신의 의미와 내용
5. 전도의 실제적인 문제
6. 전도시 반대 질문에 대한 답변

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3.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에 때문입니다(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4.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벧전 2:9, '요 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땅을 한 나라로 삼으라'고 하신데서 이의 회를 위하여 기록을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성도들이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인 복음이 세상 어떤 소석보다 비효율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은 복음 외에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바울은 고전 9:16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도의 위대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임 항상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딤후 4:2, 살롬!

(정현민 목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박 경 회 (신교사, 청년2부)



말레이시아에서 주말이면 방문했던 원주인 마을이 몇 군데 있었는데, 캄뽕 까노란 이 마을을 중심으로 캄뽕 까마무와 부짓 이맘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도지에서 차로 타고도 7시간 정도는 족히 걸리는 거리였으므로 이 마을들을 방문할 땐,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곳에서 1박 후 주일날 저녁에 돌아와야 했다. 이 마을들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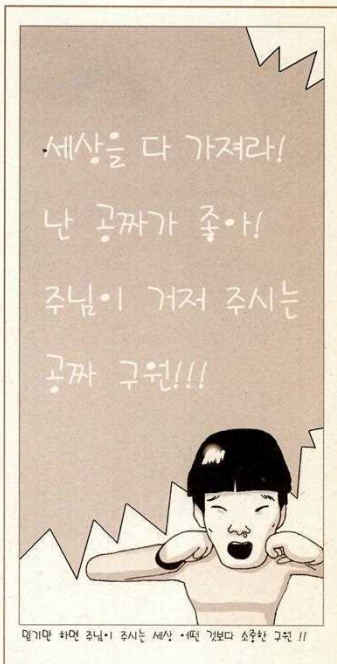
진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이제 이 마을에서 첫 세례교인들이 나왔다. 종교경찰들이 그들을 회유했다. 기독교의 전파도 막고, 그들을 모순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런 일들은 늘 있어 왔다. 복음교인이 꽤 있었던 마을에서도 세례를 받았던 한 가정만이 예배에 참석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그 마을들은 일터에서 지는 것인가? 사역자들은 금식하며 그 마을들을 중보했다. 새벽에도 밤에도 눈물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 한 번 이슬람화된 마을들에는 다시는 우리가 방문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우리가 이 마을들을 방문했을 때, 우리들은 길로지는 미소짓고 있었지만 마을의 열려들을 감출 수는 없었다. 과연 예배로 나아올까? 아니면, 우리들을 외면할까? 첫번째 마을, 텅 비어 있었다. 마을이 무거웠다. 길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잠시 후, 정원에서 채취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캄주리들을 내려놓은 그들은 기쁘게 예배에 참석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룻밤을 자게 되는 캄뽕 까노란 향하는 그 울릉들을 비포장도로 위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을날 아침 캄뽕 까노란에서의 예배에서도 원주민들의 마음은 회복되어 있었다. 오후, 부짓 이맘, 이슬람 학교의 기숙사에 있는 원주민 아이들, 마을에서 학교가 멀어 그들은 주일날이면 이미 기숙사에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마을에서의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학교를 찾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달려나온 아이들,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 기독교인이 된 한 자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회복된 마음, 회복된 아이들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들의 두려움과 열려들을 기쁨의 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 나예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아버지와 오빠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그들은 매일 내 마음의 기도제목이 아닐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어느 날 아침 목장시간,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34절의 "...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말씀으로 가족 구원에 대해 확신과 위로를 주셨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그것은 아버지가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귀국 후, 추석 무렵 부모님을 뵈었고, 주일이 되어 부모님과 나는 함께 교회에 갔다. 나 이드신 아버지에게 찬송가로 퍼드리고, 성경도 찾아드리며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드리는 예배는 가슴 벅참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 예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성경에 대해 이것저것을 설명하느라 때론, 질문을 멈추고 성경을 펴기도 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가로서 길,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이 되어 내 속에 남아 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니... 하지만 내 작은 수고에 비해 너무도 큰 선물을 주셨다.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 기뻐고 감사했다. 아버지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오빠들이 아직 주님께 나아오진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가운데 오늘도 기도한다. 나의 반석이신 내 구원의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3:1).

◇ 만평

글·그림 / 장 민(minj74@jaangminn.com)



일에 쫓기는 사람입니까? 비전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김 인 식 (목사, 청년2부 지도)

연말이 가까워 옵니다. 요즈음 하루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갑주 단위가 아니라 한 주 단위로 회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짧아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눈을 뜨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 그것들과 고전부터 하다보면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 가는지! 그 때문이 순간순간 물러오는 일감들을 눌러 피곤함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에 쫓기다 보면 끝내야 할 일들과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 납니다. 그러나 일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나 때로는 일 속으로 자신을 더 깊숙히 파묻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보다는 어떤 일꾼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줍니다. 단순히 이일 저일 쫓아 다니며 불끄기에 급급한 소망수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불끄기에 관한 정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로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들 각자는 자신을 점검 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에서는 일에 몰려 사람(What to do)이 되기보다는, 어떤 비전을 따르는 사람(What to be)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 공기가 매우 차웠습니다. 겨울이 울려 나옵니다. 옷깃을 여미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예담원을 다녀와서

김 영 복 (청년2부 회장)

교회에서 출발하여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에는 약 40분 정도가 걸렸다. 그곳의 입구는 길쭉한 문 하나가 전부였다. 문을 열자마자, 방이었고 방안에는 낡은 좌식 탁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썰렁한 방 중간에는 아직 커져 않은 석유난로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뿐 바깥의 차가운 온도가 실내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약 15명 정도의 정년장 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이 빈가를 계속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카네이션 꽃 공예에 들어가는 기호 재료로서 일단개는 송곳으로 카네이션 꽃에 구멍 뚫고, 이단개는 그 뚫힌 구멍에 철사 끼우기, 삼단개는 녹색 종이테이프 감기, 사단개는 철사 구부리기였다. 한 광주리에 분량이 채워지면 그 분량으로 다할 때까지 앉아서 계속 만드는 것이다. 청년2부에서 주수강사주일에 형제자매로부터 거둔 과일 3박스과 찹쌀초코파이 1상자를 그들에게 건네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해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이의 표정은 우리에겐 별 관심없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어떤 형제는 밝은 미소를 계속 띄우고 있었으며, 또 어떤 자매는 수련일에 하는 일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듯했다. 그들의 나이는 약 15세에서 많게는 40세를 웃도는 나이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지루함이나 힘들다거나 화가 난 기색을 엿볼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정년지체이로 갓난아기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그들은 어찌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조차 느껴지지 못하고 그렇게 컸을지도 모른다.

이곳을 다녀와서 느낀 점이 많이 있었다. 평소에도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헌신에 대



하여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오고 있는 데 호명자는 어떤가? 사역해야 할지 잘 몰랐다. 그러나 교회와 동생들 통해 배울 수가 있었다. 교 회 안에서 봉사 사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무언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으로 장차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쓰여졌나를 스스로 계산해 보는 것이 자신에 유익할 것이다.

앞으로도 자주 모여서 이러한 일에만 마음으로 봉사하는 청년2부가 되어야겠다. "내가 전년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명성대신

“조금만 더”

안 수주 (14교구)



“본 가시는 안수주 성도님이 손을 움직일 수 없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갔던 건 어릴 때였는데 마음이 편하고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교회를 맘 놓고 다닐 수가 없었어. 자연스럽게 불교인이 됐지. 그래도 찬송가는 잊지 않고 부르곤 했는데 ‘벌리벌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하는 찬송이요. 그 찬송이 왜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둘째딸이 순복을 교회 다니게 돼서 가끔 따라 갔었는데 그때도 맘이 편해지고 좋았지만 핸디 잘 가지지가 않았어. 구원을 믿을 수 없었지. 내가 지 죄는 게 없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 그렇게 살다가 어느날 넘어져서 영지배를 받았는데 그 뒤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간병인을 부르는데 간병인들마다 다 예수님이 있어. 예수 믿으라고 말했는데 해 주지만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믿기 싫은 척하고 있었는데 데 지금 간병인이 천현교회 한 번 가보자고 했어. 마침 내가 좋아하는 ‘벌리 벌리 갔더니’를 불러 주기도 하고 해서 그러기로 했지. 그리고 맨날 예수님 애기도 해 주는 거야. 그래 내가 세례 받자고 한 거지. 아프리카에 갔어 가서는 못 받고 일제때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줬지. 이제 천국에 가겠거든 너무 늦게 믿었어.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믿었어. 좀 젊을 때 믿어서 교회도 맘이 가고 말씀도 확실히 배우고 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냥 믿는 거지.

너무 늦게 믿은 게야. 장례식은 교회식으로 해야 하는데 자식들이 어떨지는 몰라서. 그대 장례식이라도 교회식으로 해야 자식들이 예수를 알텐데, 자식들은 아직도 불교라. 나처럼 늦지 말고 빨리 믿어야 할텐데 아...

따뜻한 이야기

차가운 빛과 쓴 소금

한 성도가 생명이 위급해서 헌혈증이 필요하다고 주간충헌에 부탁했다. 주간충헌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사하게 걸쳐서 왕고와 호소의 글을 실었다. 그런데 들어온 헌혈증은 16장, 고약 4명의 사람들이 들었고. 주간충헌은 보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헌혈증이 없는 걸까. 충헌교회 제직인이 이 만병을 넘어서고 출석의원도 만병 가까이 된다. 그 중 오직 내님이 헌혈증을 갖고 있으며 주간충헌을 봤다는 것인가!

구역방범을 다니면서 보였던 한 집사님과 지하철에서 만났다. 노약자석에 한 자리가 비어서 집사님을 앉혔다. 우리 교구의 아이키며 구역 식구들 집사님을 나누며 가고 있었다. 그 때 목발을 짚은 한 장애인 분이 들어왔다. 장애인석은 바로 우리 옆에 있다. 노약자석에는 할아버지 한 분, 젊은 남자 한 명, 그리고 집사님이 앉아 계셨다. 장애인 젊은 남자가 일어나야 할 텐데 젊은 남자는 바로 눈을 감아버렸다. 그 시리를 모르는 젊은 남자. 타이밍을 놓치면 자리 비켜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장애인 분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젊은이와 장애인을 번갈아 보지 않는 한 표정이다. 할아버지는 얼마만 생각해왔는지 주중하다가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다보니 우리네 집사님은? 떠돌고 있다. 교회 이야기를 신나게 떠돌고 있다. 구역식구 이야기를 신나게 떠돌고 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천인 줄을 충헌교회 성도인 줄을 알고 있다. 유난히 목사님이 크게 떠돌다. 장애인들이 들어왔는지 모르는 건가? 목발이 보이지 않는 건가? 너무도 태연하게 그냥 앉아 계시는지 그냥 눈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다.

사 랑이 있는 곳에는 소문과 정보가 오고 가게 되는 데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컴퓨터의 놀라운 발전과 그것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이 시대를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소간의 어떤 오해 속에서 A가 B에 대하여 믿지 않은 내용을 말함으로써 소문이나 정보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하든 원치 않은 소문과 정보를 알게 될 때에 그 내용들마다 발전 지향적이어서 모두에게 유익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속에 만연한 소문들, 그 소문들로 인한 진통과 스트레스가 생명의 위기까지 파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업’. 그 조그만 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무기가 되고 있는지... 그런데 더 안타깝고 슬프다 못해 진통을 느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배법을 받은 교회들의 모임 속에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경향이 발동되고 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남을 향하여 자신의 이해, 상식 수준에서 분석 비판하는 계통은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망배하는 것인 줄을 미처 모르고 사단의 작전에 미혹되어 나쁜 역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고합니다.

진통을 갖는 곳을 지나다 보면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쓰여진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아직도 덜 성숙한 교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인데 이쪽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보다 더 잘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 계속 공사중이십니다’ 라고 한 신문을 기억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은혜로운 한 장로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거엔 경장히 완고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막이면서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장로인 남편이 자랑스럽다며 칭찬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씩 그 분들을

소문

이 명숙 (집사, 13교구)

을 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소문들,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며 교회에 유해하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 대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도 내 영혼에 피로가 몰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충헌교회 뿐 아니라 온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그 덕을 나누는 소문들로 만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문이 하나둘의 나라는 의를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 저기 서 복음이 없는 소식들을 접하며 생각해 봅니다. 신년 사상에 의하여 배타적이었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민족 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였습니까. 그런데 길이고 신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희미해져 가고 있음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 말미암아 더러움을 얻을까 두려워하고(히브리서 12:15)”

충헌교회에 감사드리하는 것은 김성관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인들도 머물러 있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고 모두들 복을 신앙으로 개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와 우리를 계속 공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 양호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나 저는 교회의 이름을 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6교구 고가이 성도님 아들 정범용 성도님 요양을 마치고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골수가 맞은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아직 못 구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1교구 이성진 어린이(여, 8세)가 사과의 리퀘스트 출연으로 치료비를 증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수암으로 진전되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했으나 학교에 등교하는 등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5교구 노봉관 성도님 폐와 척추에 암이 전위되어서 중앙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요청됩니다.

고난 당하는 이웃을 그들 지나치치 마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간접함을 기다리십시오.

(권오섭 기자)

사랑부 초청전도잔치를 마치고

이 삼열 (전도사, 사랑부 부지도)

사랑부가 우리 총회교회에 있음으로 우리의 높아지려는 마음이 낮아짐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한다. 사랑부는 어두운 한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자 모퉁이들이며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소금이 되고 빛이다.

사랑부에서 11월 7일 '장애인 초청잔치'가 있었다. 10월부터 모든 사랑부 교사들은 '초청전도잔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를 하는 남은 한 주일동안 하나님께서 사랑부 교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이 섬길 수 있는 모든 일에 주저하지 않고 봉사하였다. 힘들어도 불평하는 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을 불러주소서"

'초청잔치' 열리게 되었다. 얼마나 참석할까? 30-40명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였다.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83명의 귀한 영혼을 초청하여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은 말할 수 없었다. 결산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한 영혼이 20여명이 되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지체이지만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였다. 예수님은 힘들어도 소외된 이들의 진정 친구이시고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다.

사랑부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주님께 올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 사랑부 지체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감사함이 있다. 어날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진정한 이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아닐까?

무관심보다는 동정심
동정심보다는 한 뇌의 동정심
동정심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손길보다는 당신의 몸을
차라리 당신의 몸을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크림을 바른 빵이 아니나다.
우리가 당신에게 물어볼 말은
"오직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나?"

나의 달란트

문성옥 (예바다부 교사)

수확에 대한 동경만을 갖고 있었던 '96년도 예바다부 '수확찬양발표회'를 통해 예바다부에게 소개 되었습니다.

예바다부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때 "안녕하세요?" 하고 수확로 인사했지만 제대로 못해 창피했던 슬픈 기억, "미안합니다"도 따라하지 못해 정말로 많이 미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예바다부에서 통역자로 봉사하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늘 부족한 나 자신때문이지요.

수확통역을 하는 동안에 한 단이라도 정확히 전해주기 위해 마음줄이며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늘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통역 후에 예바다부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아니 예바다부 식구들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솔직히 야만했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갑니다. 하지만 늘 한결같이 예바다부 가족들 "너무 예뻐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인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외역적으로 보이는 통역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기도도 많이 준비된 통역자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모습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바다부 가족께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예바다부를 아끼는 문성옥 올림

제일의 열심 '사무엘(Samuel)'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여러분은 '사무엘'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린 사무엘? 양명된 사울? 아니면 다윗과 골리앗이나 벳세바? 그렇지만 단순히 읽기에는 너무 가까운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무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선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70인역(구약 헬라어 번역본)에 의해 둘로 나누어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70인역, 라틴어 번역인 발게이트, 그리고 전통적인 히브리역이나 현대 번역본들이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으실 때는 우선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국시대로 들어가는 연결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삿 17:6, 21:25), 결국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신정정치(神政統治)에서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정치(王政統治)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변 국가들의 중앙 집권적이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조체제를 잘 알고 있었고, 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왕정체제를 선택한 것입니다(삼상 8:7).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선택한 왕정정치에도 영원한 왕인 메시아 대왕 사상의 시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영원한 왕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다윗 연약 이 때문입니다(삼하 7:13). 이것이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아 대왕 사상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왕들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인간관계를 기억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의 사역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주의하여 읽으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참되신 왕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에게,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음호에 계속)

(김동하 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이니



연꽃 서처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열병'

이 가을에 나는 심한 열병을 앓았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짓눌러서 더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피는 듯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의 시간은 지나갔고 나의 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시간의 흐름만큼 점점 잊혀져 갔었다.

오랫동안의 한가한 오후 집 앞의 학교운동장을 거닐게 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있었다. 비교적 먼 거리에 치기 장난을 하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내 시선을 잡았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날렵하게 뛰면서 술래를 피해다녔다. 그 때 한 아이가 넘어져서 팔의 통증을 자신의 형에게 호소했다. 그 아이의 형은 우는 동생을 데려다가 팔의 심상치 않음을 판단하고는 동생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가련이었다. 한 살 정도 더울인 듯한 두 형제는 덩치와 고만고만하여 그 형은 등에 업는다고 업었지만 동생은 거의 걸질 끌러가는 듯 보였다. 형은 자기 힘에 보태려는 모습이었지만 우는 동생이 너무나 안쓰러워 그렇게라도 등에 업고 가는 것이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나는 알수 없는 묘한 통렬함이 가슴 속에 지며왔다.

'아! 저 어린아이도 동생이 아파하니 저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파서 힘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는 힘없는 상황 바라볼 뿐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며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나는 가슴 속에 스며드는 커다란 소망을 안고 학교 운동장을 나왔다.

(황성인)

